

개성고, 9년만에 전국대회 우승

(옛 부산상고)

강호 장총 7대5 꺾어...무등기 첫 패권 구원 김민식 5피안타 4K 호투 'MVP'



결승전

결승전 다운 명승부였다. 부산 개성고(옛 부산상고)가 2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공·수의 집중력을 앞세워 서울 장충고를 7-5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초반 승부의 키는 장총고가 쥐었다.

장총고는 1회부터 발 빠른 타자 김건호의 2루타를 시작으로 개성고의 마운드를 압박했다. 희생번트에 이어 정성민의 적시타로 1점을 뽑은 장총고는 이지혁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태며 2-0을 만들었다.

장총고는 3회 2사 1루에서 이지혁의 2루타로 3-0을 만들며 개성고의 선발 최영환을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하지만 수비의 집중력이 승패를 갈랐다.

개성고의 공격이 진행되던 3회말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임재현이 도루에 성공한 뒤 포수의 송구실책이 나온 사이 3루까지 진출했다. 박세준의 내야 땅볼 때 3루주자가 홈인 하면서 개성고의 추격이 시작됐다.

3-1로 개성고가 뒤지던 5회 말 장총고의 빠픈 수비 실책이 이어졌다.

1사 1루에서 3루수의 송구실책과 폭투가 연달아 나오면서 3-2. 이어진 2사 2-3루에서 신승철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점수는 3-4로 뒤집혔다.

구원 등판한 개성고의 김민식과 장

총고의 정다환이 삼자범퇴로 6회를 마무리 하며 양팀은 팽팽한 힘 대결을 펼치는 듯 했지만 7회 수비 실책이 경기의 흐름을 뒤바꿨다.

7회말 개성고의 테이블 세터 박준태와 임재현의 연속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3루. 박세준의 땅볼을 처리하던 유격수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았고, 무사 2·3루가 됐다.

잇단 실책으로 마운드가 흔들린 장총고는 정민우·신승철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다시 2점을 내주었다. 점수는 3-7이 됐다.

4회 1사에서 마운드를 넘겨받은 개성고 좌완 김민식은 8회까지 3개의 탈삼진 속에 12타자를 연속해서 범타로 처리하며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듯 했다.

9회 뒤늦게 2007년 무등기 우승팀 장총고의 뒷심이 발휘됐다.

9회초 대타 성현기가 좌전안타를 기록하면서 무사 1루. 신민기가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1번 김건호가 좌전안타를 터트리며 1사 1·2루를 만들었다. 장총고는 사공명의 불빛으로 만무한스까지 잡았다.

1사 만루에서 3번 정성민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3루 주자 성현기가 홈을 밟았다. 그 사이 타자 정성민이 2루 진출을 시도하다가 1루로 되돌아오는 것을 본 포수가 이를 잡기 위해 1루로 던진 공이 뒤로 빠졌고, 3루에 있던 김건호가 홈에 들어오면서 5-7이 됐다.

이어진 1사 1·3루. 정성민이 2루를 홈치면서 2·3루를 만들었다.

안타 하나만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투수 김민식이 장총고의 4·5번 타자를 플라이로 요리하면서 개성고의 승리를 지켜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장총고와 개성고의 결승전에서 개성고 선수들이 장총고를 7-5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후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리한 변화구 주무기로 우승 이끌어

MVP 개성고 김민식

“나를 믿어주시는 감독님 그리고 끝까지 좋은 경기를 펼쳐준 동료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산 개성고 좌완 김민식(2년)이 서울 장총고와의 결승전에서 5와 3분의2이닝동안 5피안타 1사사구 4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팀의 우승을 이끌어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앞서 탄탄한 마운드를 자랑하는 군산상고와 아탑고와의 경기에서도 중간계투로 나서 상대 에이스를 상대로 2승을 챙겼던 김민식은 결승전에서도 4회부터 마운드를 지키며 '구원왕'에 등극했다.

김민식은 “9회 들어 힘이 빠지면서 2실점을 하는 등 고비를 맞기는 했지만 '내 공은 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는 승부를 펼쳤다”며 “장총고가 기동력도 좋고, 컨택 능력이 좋은 만큼 코스 코스로 유인구를 던지자고 생각하고 마운드에 올랐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



다”고 밝혔다. 188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김민식은 직구 구속이 135km 정도에 불과하지만 예리한 변화구가 장점이다. 결승전에서는 커브를 결정구로 사용해 장총고의 타선을 묶었다.

김민식은 “결승전에서 체인지업에 힘이 들어가서 커브를 주로 던졌는데 제구가 좋았다”며 “아직 2학년인만큼 웨이트와 러닝을 열심히 해 직구 구속을 올려 김광현·류현진과 같은 좋은 좌완 투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민식은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최우수선수의 영예까지 안았지만 개성중학교 1학년 때 뒤늦게 야구를 시작한 노력파다.

“야구하는 아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부모님께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돌리고 싶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선 집중력 상대 마운드 혼든게 주효

감독상 개성고 김상재

“전국대회 9년 만의 우승인데다 감독에 부임한 이후 첫 우승이어서 더 감격스럽습니다.” 개성고 김상재 감독은 특정한 마운드와 수비를 바탕으로 한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으로 부임 6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결승전 1회 초 2점을 먼저 내주면서 경기가 어렵게 흘러갈 뻔 했지만 선수들이 집중력을 갖고 끈질기게 상대 투수를 괴롭혀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개성고는 7-3으로 앞선 9회 초 장총고의 마지막 공격 때 2점을 내주는 등 자칫 역전당할 수 있었지만 선수들의 몸을 던지는 허슬플레이에 힘입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승리로 개성고는 무등기 대회 첫 우승이자 10년만의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영예를 동시에 얻었다.

김 감독은 “앞선 경기에서 부진했던 신승철



과 임재현이 결승전에서 큰 역할을 해준 덕분에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결정적 일 때 수비를 잘해준 선수들이 너무 고맙다”고 선수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돌렸다.

개성고는 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는 내용으로 무등기 대회를 찾은 관중들에게 야구의 묘미를 선사했다. 대회 첫 경기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를 만나 4-2의 힘든 승부를 했으며 아탑고와의 준결승에서도 팽팽한 접전을 펼쳤던 것.

김 감독은 “시민들의 후한 인심은 물론 우승 토로까지 준 광주는 나에게 '기회의 땅'이라며 '내년에도 꼭 무등기에 참가해 대회 2연패를 차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2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시상식에서 유재철 광주일보사장이 개성고에게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기 단체·개인 수상자

- ▲우승= 부산 개성고 ▲준우승= 서울 장총고 ▲3위= 광주 동성고, 경기 아탑고
- ▲최우수 선수상= 김민식(개성고 투수) ▲우수투수상= 김민식(개성고)
- ▲타격상= 정성민(15타수 8안타·타율 0.533·장총고 포수) ▲미기상= 임재현(개성고 유격수) ▲김투수상= 최영수(장총고 투수) ▲수훈상= 신승

- 철(개성고 좌익수) ▲최다 안타상= 정성민(8개·장총고 포수) ▲최다 타점상= 정성민(7타점·장총고 포수) ▲최다 도루상= 김건호(4개·장총고 유격수) ▲최다 홈런상= 유경국(1개·동성고 투수) ▲감독상= 김상재(개성고 감독) ▲지도상= 배희근(개성고 부장) ▲공로상= 조재상(개성고 교장) ▲심판상= 이 군(광주시 야구협회) ▲故 최인식선수상= 김민식(개성고 투수)

■ 결승전 이모저모

○결승전이 벌어진 무등경기장야구장에는 양팀의 총동문회가 응원단으로 참석해 열정적인 응원으로 치열한 기싸움. 개성고는 40여명의 학부모와 총동문회가 경기장을 찾아 40여 명이 넘는 응원가로 선수들에게 힘을 전달. 장총고 응원단도 50여명의 학부모와 총동문회가 경기장에서 파도타기 응원 등으로 '10번째 선수' 역할 하기도.

장맛비에 응원단 줄어 아쉬움

○전날 밤부터 남부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무등기 개막을 예상한 각 학교에서는 대규모 응원단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후문. 개성고 응

원단은 대형버스 두 대를 준비했으나 부산 94.5mm, 광주 80.5mm 등 장맛비로 응원단이 크게 줄었으며 장총고도 예상보다 절반이나 적은 응원단이 참석.

개성고 총동문회 응원단 오상복(38·78회 졸업)씨는 “무등기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대규모 응원단을 준비했으나 날씨가 도와주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

맛깔스런 전라도 음식 극찬

○맛의 고장 광주를 찾은 양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맛깔스런 음식맛과 친절한 시민들에 찬사. 김상재 개성고 감독은 “다른 지역에

가면 비싼 음식값에 비해 맛도 떨어졌는데 광주에서는 맛도 좋고 가격도 싼데다 인심까지 후했다”고 호평.

장총고 동문들 장미꽃 선물

○명승부 끝에 결승전에서 아깝게 패한 장총고의 총동문회가 후배 선수 모두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씩 주면서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을 전달. 장총고는 3-7로 뒤진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2점을 따라붙는 등 끈질긴 야마야구의 진수를 보여줬으나 아깝게 패배. 후배들의 선전에 눈물을 보이기도 한 동문들은 이내 직접 경기장으로 내려가 격려.

장총고 총동문회 박정남 응원단장은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명문 야구구단인 만큼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꼭 무등기 대회에서 우승하리라 믿는다”고 선전을 다짐.

서재응 등 KIA 선수들 관심

○KIA 타이거즈의 선수들도 무등기 응원에 동참. 서재응을 비롯해 이날 오후 훈련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선발 투수진들은 훈련 시 작전 경기를 지켜보며 관심. 특히 장총고 출신의 유동훈은 관중석에 앉아서 동문들과 함께 모교의 우승을 기원. /강필성기자 kps@

학부모·동문 응원 기싸움... '10번째 선수' 역할 토크